



자칭 유튜브 망령인 제가 인상 깊게 본 영상에 대한 소감을 앞으로 이 포스팅처럼 남겨볼까 합니다. 오늘 본 영상은 '슈카월드 코믹스' 채널의 '슈카쌤 리즈 시절 시험비법'입니다. 영상 링크는 맨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이전부터 수능 관련하여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어릴 적 독서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많이들 공감을 하곤 했습니다. 학습만화가 대부분이긴 했지만, 어릴 적 도서관에 자주 들락거리던 저 역시 그 수혜를 받아 별다른 공부 없이 높은 성적을 유지했다고 생각했고요.

최근 들어 MZ 세대 문해력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심심(深甚, 甚深)한 사과', '명일(明日)', '금일(今日)' 등 주로 한자어에서 문해력 이슈가 많이 발생했지요. 지나치고 깊다는 뜻을 가진 '심심'과, 다른 한자권 국가인 중국, 일본 등에서 내일을 뜻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는 '밝을 명'과, 금요일의 금(金)과는 다른 한자를 쓰는 금일의 '이제 금'(今)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예전만큼 일상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다 보니 문맥상으로나마 의미 파악을 할 기회가 없었던 이유도 있을 겁니다.

일상에서도 보기 어렵고 학교에서도 더 이상 자주 사용하지 않는 한자. 한자어 비롯한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바뀌는 일이 권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한자를 공부해야 하는가? 한자 공부를 해라 마라, 순화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해력 문제는 MZ의 잘못이 아닙니다. 일상이 변하지 않았다면, MZ는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능 초기보다 훨씬 고난도의 수능이라도 잘 보고 있을 겁니다. 시험이 긴 지문을 읽는 것이 아닌 최근의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영상물을 시청한다거나 한자어보다 영어가 많이 쓰이는 형태로 변했어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사회에서는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더라도, 짧은 시간제한을 둔 시험에서는 높은 독해력과 빠른 판단력을 요구합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 한자어와 긴 지문을 사용한다면, 방법이 어찌 됐든 적어도 그 단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영 연습'과 같은 훈련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터넷 강의 보급은 교육 평등 실현에 큰 도움을 주었지만, 당연하게도 강의를 '보는' 것만으로는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강사들도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진득하게 문제를 직접 읽고, 고민하고, 풀고, 쓰고, 말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 기계적으로 단시간에 문제를 풀이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술자리 같은 모임에서 하면, 잠시 이야기 불꽃이 불타오르다가도 쉽게 연소되고 맙니다. 조금 더 유의미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많은 시험을 앞둔 학생들, 고시생들에게 해야 할 텐데, 당장 제 코가 석 자인 데다 이 사실을 입증할 만큼 대단한 성취도 없는 사람이라 쉽지 않았습니니다. 솔직히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서울대' 출신 슈카 아저씨가 이렇게 정리하여 영상 만들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네요. 캡처 사진도 몇 장 들어가며 요약해 보고 싶었는데, 곡해될까 봐 조심스럽네요. 주변에 공부 잘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전체 영상 꼭 권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른들에게는 훌륭한 독서 자극 영상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책 한 페이지라도 읽고 자야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k8VcV88Le0>

슈카쌤 리즈 시절 시험비법

